

문 의	상표디자인심사국 국제상표출원심사팀	과 장 김홍영 사무관 김탁영	042-481-5379 042-481-5349
		<b>2018년 3월 30일(금) 조간부터</b>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매체는 <b>3월 29일(목) 낮 12시 이후</b> 게재 바랍니다.	

## 상표출원에 부는 '워라밸' 열풍!

- 특허청, 최근 3년간 레저상품 관련 상표출원 8.5% 증가 -

□ 최근 '워라밸'\* 바람을 타고 여가생활을 즐기기 위한 레저활동 관련 상품에 대한 상표출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워라밸'은 'Work and Life Balance(일과 삶의 균형)'의 줄임말

○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고 여가를 중시하는 '워라밸' 바람의 확산, 국정운영기조인 국민 삶의 질 개선 등 최근 사회적 분위기가 상표출원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 특허청(청장 성윤모)에 따르면, 최근 3년간('15년~'17년) 대표적인 레저상품\*에 출원된 상표는 총 7만5,369건으로, '15년 2만4,757건에서 '17년 2만6,856건으로 8.5% 증가하였는데, 이는 같은 기간 상표 전체의 출원증감률 -2.3%에 비해 4배를 넘는 수준의 증가율이다.

\* 레저의류, 등산용품, 스포츠용품, 오락/게임/놀이용품, 낚시용품, 골프용품

○ 같은 기간 상품별 출원 비중을 살펴보면, 레저의류가 50.1%로 가장 높았고, 등산용품 13.9%, 스포츠용품 12.7%, 오락/게임/놀이용품 11.6%, 낚시용품 6.1%, 골프용품 5.6%의 순이었다.

○ 내국인 출원을 출원인 유형별로 보면, 개인의 출원 비중이 54.6%로 가장 높았고, 중소기업 28.6%, 중견기업 8.0%, 대기업 5.6%로 개인 및 중소기업의 출원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 이는 개인사업자나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체가 다양하고 전문적인 레저

상품의 수요에 대하여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 특히 '17년도의 레저상품별 출원을 전년과 비교해보면, 골프용품에 대한 출원이 전년 대비 46.6%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여 작년 LPGA 투어에서 15승을 합작하며 세계 최강을 자랑한 한국 여자 골프의 실력에 걸맞은 상승세를 보였다.

○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취미로 조사('15년 한국갤럽)된 등산 관련 용품의 출원은 전년 대비 19.6% 증가했고, 레저의류는 11.3% 증가했다.

- 특히 레저의류의 출원 증가는 레저활동과 일상생활에서 모두 활용이 가능한 레저의류의 편의성과 기능성이 장점으로 부각되고, 스포츠 의류 및 관련 섬유제품 제조업 성장\*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 사업체수(개): 1,701('14) → 1,932('16), 매출(십억원): 4,164('14) → 4,428('16)

○ 스포츠용품에 대한 출원은 전년 대비 9.0% 증가했는데,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스포츠용품업의 성장\*과 함께 금년에 한국에서 개최된 대형 스포츠이벤트(평창 동계올림픽, 패럴림픽)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 사업체수(개): 32,948('14) → 35,859('16), 매출(십억원): 31,376('14) → 33,547('16)

○ 주로 실내 여가활동과 관련된 오락/게임/놀이용품에 대한 출원은 전년 대비 7.3%의 증가율을 기록했고, 낚시인구 700만 명(해양수산부 추산) 시대를 맞아 여러 예능프로그램에서 주요 콘텐츠로 등장하고 있는 낚시 관련 상품의 출원은 5.8% 증가했다.

□ 특허청 이재우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일과 삶의 균형, 삶의 질 향상이 한국 사회의 화두로 떠오르고, 최근 근로시간 단축 법안이 통과되어 앞으로도 개인 생활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하며,

○ “이러한 분위기에 맞추어 소비자의 시선을 끄는 상표권 선점을 통해 사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붙임 레저상품 관련 상표출원 통계

# 붙임 최근 3년간 레저상품 관련 상표출원 통계(2015년~2017년)

## □ 최근 3년간 연도별 레저상품별 상표출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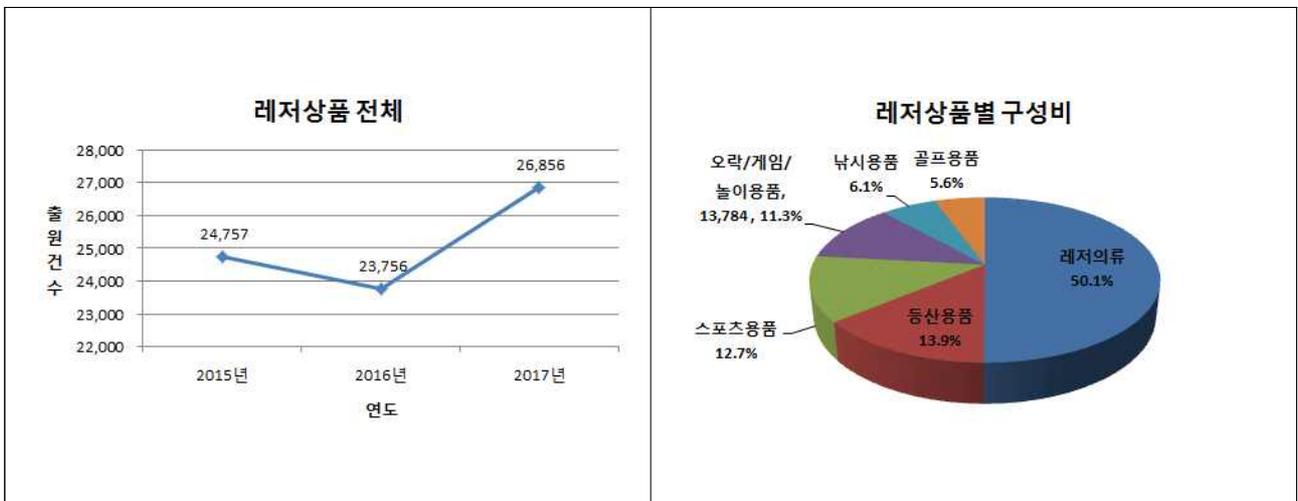
(단위: 건, %)

구분	2015	2016	2017	계	증가율		구성비	
					연평균	'15년 대비		
상표 전체 (전년대비)	239,334	227,762 (△9.4)	233,820 (11.3)	700,916	△1.2	△2.3		
레저상품	레저의류 (전년대비)	12,956	11,734 (△9.4)	13,060 (11.3)	37,750	0.4	0.8	50.1
	등산용품 (전년대비)	3,294	3,274 (△0.6)	3,915 (19.6)	10,483	9.0	18.9	13.9
	스포츠용품 (전년대비)	3,162	3,080 (△2.6)	3,357 (9.0)	9,599	3.0	6.2	12.7
	오락/게임/ 놀이용품 (전년대비)	2,667	2,937 (10.1)	3,150 (7.3)	8,754	8.7	18.1	11.6
	낚시용품 (전년대비)	1,416	1,542 (8.9)	1,631 (5.8)	4,589	7.3	15.2	6.1
	골프용품 (전년대비)	1,262	1,189 (△5.8)	1,743 (46.6)	4,194	17.5	38.1	5.6
	레저상품 계 (전년대비)	24,757	23,756 (△4.0)	26,856 (13.0)	75,369	4.2	8.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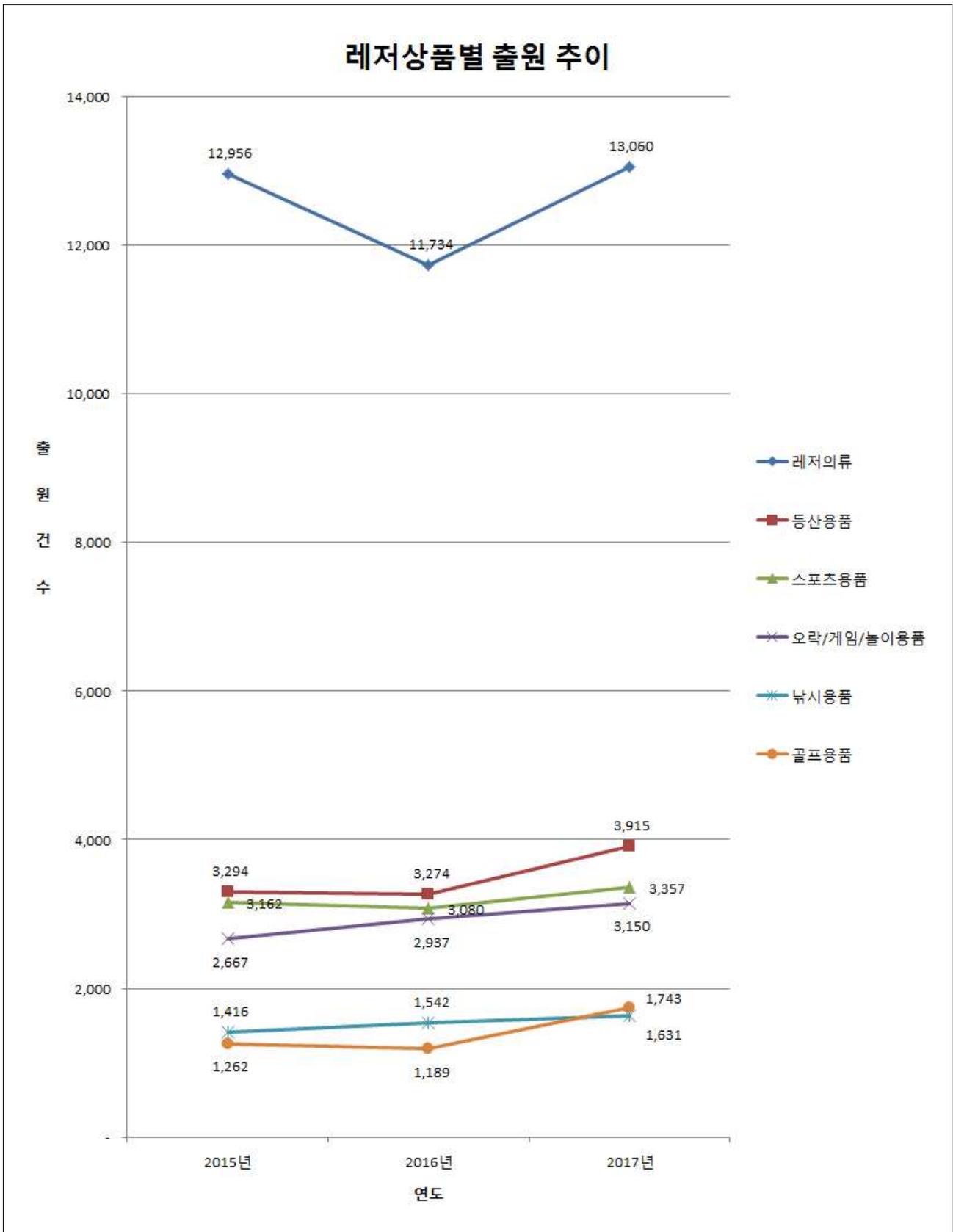
\* 상표 전체 출원건수: 다류 기준

\* 레저상품 출원건수: 1건의 출원에 여러 분야의 레저상품을 지정한 경우는 별개의 건으로 집계

## □ 최근 3년간 레저상품 전체 상표출원 추이 및 상품별 구성비



□ 최근 3년간 레저상품별 상표출원 추이



□ 최근 3년간 출원인(개인/법인, 내국인/외국인)별 레저상품 관련 상표출원 현황

(단위: 건, %)

구분	개인	법인	계	내국인	외국인	계
레저의류 (구성비)	19,535 (59.5)	13,287 (40.5)	32,822 (100.0)	29,038 (76.9)	8,712 (23.1)	37,750 (100.0)
등산용품 (구성비)	3,302 (35.1)	6,106 (64.9)	9,408 (100.0)	8,398 (80.1)	2,085 (19.9)	10,483 (100.0)
스포츠용품 (구성비)	3,274 (39.8)	4,951 (60.2)	8,225 (100.0)	6,879 (71.7)	2,720 (28.3)	9,599 (100.0)
오락/게임/놀이용품 (구성비)	2,843 (38.0)	4,637 (62.0)	7,480 (100.0)	6,238 (71.3)	2,516 (28.7)	8,754 (100.0)
낚시용품 (구성비)	1,464 (35.1)	2,704 (64.9)	4,168 (100.0)	3,637 (79.3)	952 (20.7)	4,589 (100.0)
골프용품 (구성비)	2,408 (59.1)	1,665 (40.9)	4,073 (100.0)	3,843 (91.6)	351 (8.4)	4,194 (100.0)
총합계 (구성비)	32,826 (49.6)	33,350 (50.4)	66,176 (100.0)	58,033 (77.0)	17,336 (23.0)	75,369 (100.0)

\* 1건의 출원에 여러 분야의 레저상품을 지정한 경우는 별개의 건으로 집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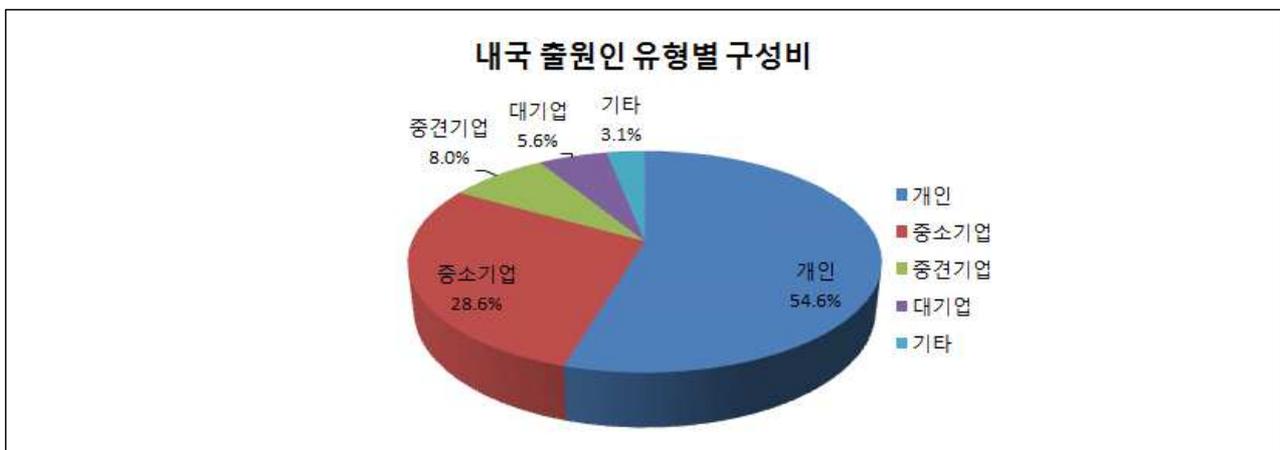
\* 공동출원의 경우는 대표출원인 기준

\* 마드리드 루트를 통한 국제상표등록출원은 개인, 법인의 구분이 불가하여 개인/법인별 집계에서 제외

□ 최근 3년간 출원인(개인/법인, 내국인/외국인)별 레저상품 관련 상표출원 구성비



□ 최근 3년간 내국 출원인의 유형별 레저상품 관련 상표출원 구성비



□ 국내 스포츠 의류 및 관련 섬유제품 제조업 사업체수 및 매출액

(단위: 개, 십억원)

구분	'14년	'15년	'16년
사업체수 (증감)	1,701	1,850 (8.8%)	1,932 (4.4%)
매출액 (증감)	4,164	4,279 (2.8%)	4,428 (3.5%)

\* 출처: 2017 스포츠산업 실태조사 보고서(문화체육관광부)

□ 국내 스포츠 용품업 사업체수 및 매출액

(단위: 개, 십억원)

구분	'14년	'15년	'16년
사업체수 (증감)	32,948	34,559 (4.9%)	35,859 (3.7%)
매출액 (증감)	31,376	32,617 (4.0%)	33,547 (2.9%)

\* 출처: 2017 스포츠산업 실태조사 보고서(문화체육관광부)